



<정직과 성실함으로 주님께 순종>

찬미예수! 선교의 대 주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주님 크신 은총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만은 이번 한 주간 근래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타이쥬은 아무리 추워도 영상 1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데 오늘 새벽 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건물에 난방이 없는 관계로 대만은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① 대만 이야기 - 도덕적 위기와 성적 타락

대만은 동성애가 가장 먼저 시작된 아시아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 사상, 문화적으로 무척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그 결과 성적으로 아주 문란해졌습니다. 최근 동성애가 젊은이들 가운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 사이에도 이것은 이미 심각한 문제입니다. 연말 타이쥬(台中) 도심의 공원에서 대규모 동성애 행사가 정당과 관련 시민단체의 지원으로 열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서 그 행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동성애를 지칭하던 LGBT가 이젠 LGBTQIA로 확장되고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대만 동성애단체는 한국을 비롯한 해외 단체와 교류와 연대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교회들이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문화와 도덕의 타락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타이쥬 시민광장에서 열린 동성애 행사)

② 지역교회 개척사역(衛道教會)

성탄절 주일예배 후에 이웃의 아이들과 부모를 초청했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캐롤과 간단한 게임 그리고 간식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에 어린아이들이 10명 참석하고 4명의 가정이 함께 했습니다. 저들은 처음 성탄 찬양을 불러보고 또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모든 인류를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무쪼록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의미를 알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도교회 성탄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들)

③ 지역교회 지원사역 - 아가페교회

아가페교회는 산지 원주민 젊은이들 30여명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비록 자체 예배당이 없어 마을회관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열심히 배우고 기도하는 뜨거운 공동체입니다. 뽕농족 여 목사 티엔(田)은 지난 10여년 작은 성경공부 소그룹에서 시작해 4년 전 교회를 설립하기까지 남다른 열정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있고 가능성 있는 젊은 교회는 돕고 싶습니다. 주말 소그룹모임을 저희 가정에서 가졌습니다.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과 함께 하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아가페 원주민교회 주말 모임 후에)

④ 아주대학, 근익대학 한글반 사역

지역의 아주대학교(금철), 근익대학(백은영) 사역은 지난 1월 2일 친목회를 마지막으로 한 학기 수업을 마쳤습니다. 선교사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참 컸습니다. 우리가 주로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미국 선교사는 많이 보았지만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력과 문화가 세계인을 상대로 영향력이 있다는 의미겠지요. 지금처럼 한국선교사가 대우를 받으면서 선교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이번 학기는 기초부터 간단한 회화까지 배웠는데 30명으로 시작해서 2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 대만의 대학이 복음의 불모지라서 거의 신앙인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이곳의 캠퍼스 선교가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사랑과 진리에 관한 대화들이 아이들 가운데 열매 맺고 자라나

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음 학기에도 좀 더 깊이 있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주대학교 한국어반 성탄축하행사)

⑤ 선교사 재교육

2018년 안식년을 앞두고 금 선교사는 11월 말부터 선교사 재교육 2주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각 대륙에서 온 17명의 일꾼들과 함께 보낸 2주간은 주님이 예비하신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장래에 대한 소망이 커졌습니다. 과거 사역에서 부딪힌 도전과 시련들 그리고 많은 아픔들이 함께 한 시간들 속에서 서로 공감하고 그 결과 위로를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또 개방적인 공동체 가운데서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어서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번 재교육 과정이 개인적인 영성과 사역에 있어서 분명한 성숙과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재삼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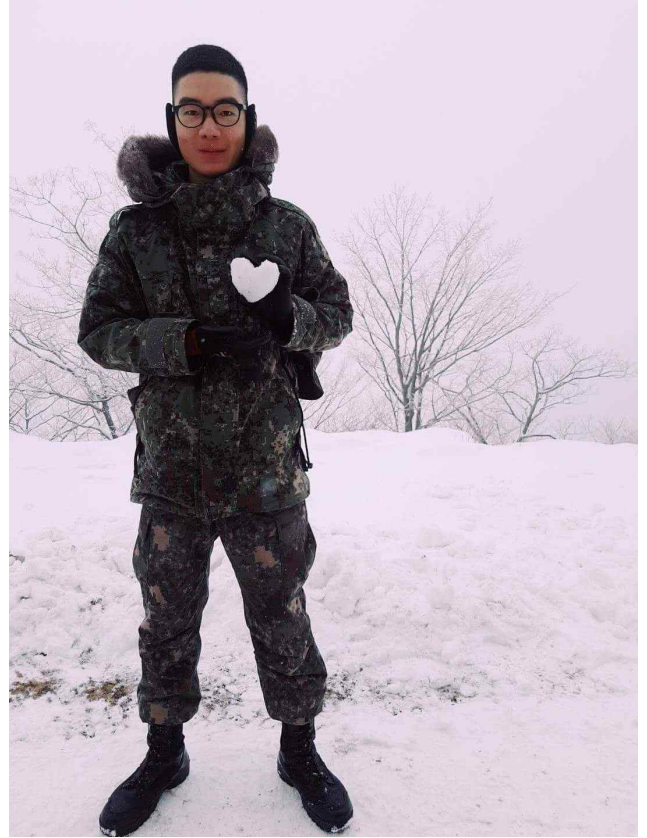


(재교육 과정 함께 하신 분들과 같이 가평 대성리에서)

⑥ 가정이야기

가족들은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막내 한빛은 고1 정서적으로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림은 청소년 사역을 염두에 두고 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아이 은찬은 2월에 병장이 됩니다. 부대에서 운동 중 코뼈가 골절되어 12월 초 수술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고 본인이 고생도 많았지만 남은 군 생활 끝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건강하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아이가 일선에 근무하니 조국의 안보와 교회를 위한 기도가 더욱 간절해집니다. 가정예배 시 매일 조국과 교회를 위해

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조국과 그 교회 가운데 공활을 더하시길 간구합니다.



(강원 인제 향로봉 대대 근무 중인 은찬)

⑦ 기도제목

1. 대만에 회개, 영적갱신, 부흥을 주옵소서!
2. 대만성결교회(전체 92개 교회 8,300 성도, 126명 교역자) 회복과 갱신을 주시도록
3. 난툰(南屯)교회, 언릉(恩榮)교회와 도시의 빛(城市之光)교회가 복음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4. 양가 노모의 믿음과 소망이 날로 깊어지게 하시고 끝까지 맑은 정신과 건강을 주소서.
5. 은찬(군복무) 하림(고3) 한빛(고1) 자녀들의 신앙과 진로를 위해서
6. 금철 백은영 선교사 영혼육이 은혜로 강건하고 주님과 깊은 친밀함에 들어갈 수 있도록
7. 교회개혁사역(衛道林園APT教會)에 주님의 복음이 능력과 큰 확신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8. 1월 15일(월)~20일(토) 인천 가나안교회(48명) 단기 선교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도록

2018년 1월 13일

대만 타이퐁에서

금 철 백은영(은찬 하림 한빛) 선교사 드림